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4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보훈정책과	담 당 자	• 보훈지원팀장 임하수 ☎440-2986 • 담당자 육민호 ☎440-298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서해수호 55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기려

-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열려 -
- 유정복 시장, “강한 대한민국 위해 국방력과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 강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월미공원 내 해군 2함대 기념탑에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해 3월 넷째주 금요일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2016년 3월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시는 정부기념일로 공포된 첫 해부터 범시민적 안보의식 결집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매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관계 인사와 인천지역 보훈단체장 및 단체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해수호 전사자들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서해수호 약사 보고, 기념사, 서해수호의 날 기념노래 등으로 진

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일상과 평화는 조국의 안녕을 위해 온몸을 바친 55명 용사들의 희생 덕분이며, 용사들이 보여준 호국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하여, “조국을 지켜낸 영웅들이 꿈꿨던 떼떼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할을 다하고, 2017년 선포했던 호국보훈 도시 인천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위해 인천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